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비엔날레가 뭐죠?

■ 세계 3대 비엔날레를 꼽으라면...

베니스·휘트니·상파울루 베니스 비엔날레 ‘最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엔날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3대 비엔날레로 베니스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를 꼽는다.

1895년 이탈리아 국왕의 제25회 결혼기념일을 기념해 베네치아(市) 주최로 창설된 베니스 비엔날레는 1930년부터 국가가 주최했다. 가장 오래된 국제 미술전시회인 만큼 세계 현대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하다.

매회 회화와 조각, 국가관 그리고 35세 미만의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4개의 ‘황금사자상’을 수여하고, 그밖에 4명의 작가에게 특별상이 주어진다.

한국 작가가 처음으로 참가한 것은 1986년이며, 1993년 제45회 때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독일 대표로 참가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100주년을 맞은 1995년에는 한국관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 세계에서는 25번째로 개관했다. 이 해 설치미술가 전수진이 ‘방황하는 흑상들 속의 토우-그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작품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미국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리는 휘트니 비엔날레는 1932년 미국 내 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회화와 조각 부문으로 나뉘어 한 해에 두 번 개최됐다.

1973년부터 2년에 한 번 열리는 비엔날레로 정착했으며 엘리트 작가 위주의 권위주의적 미술 전시회에 반기를 들고 출범한 만큼 작품에 대한 시상제도와 상금 등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1975년에는 비디오, 1977년에는 영화를 새롭게 포함하여 장르를 넓혔으며, 1997년부터는 미국 시민에 국한돼 있던 참가자격을 미국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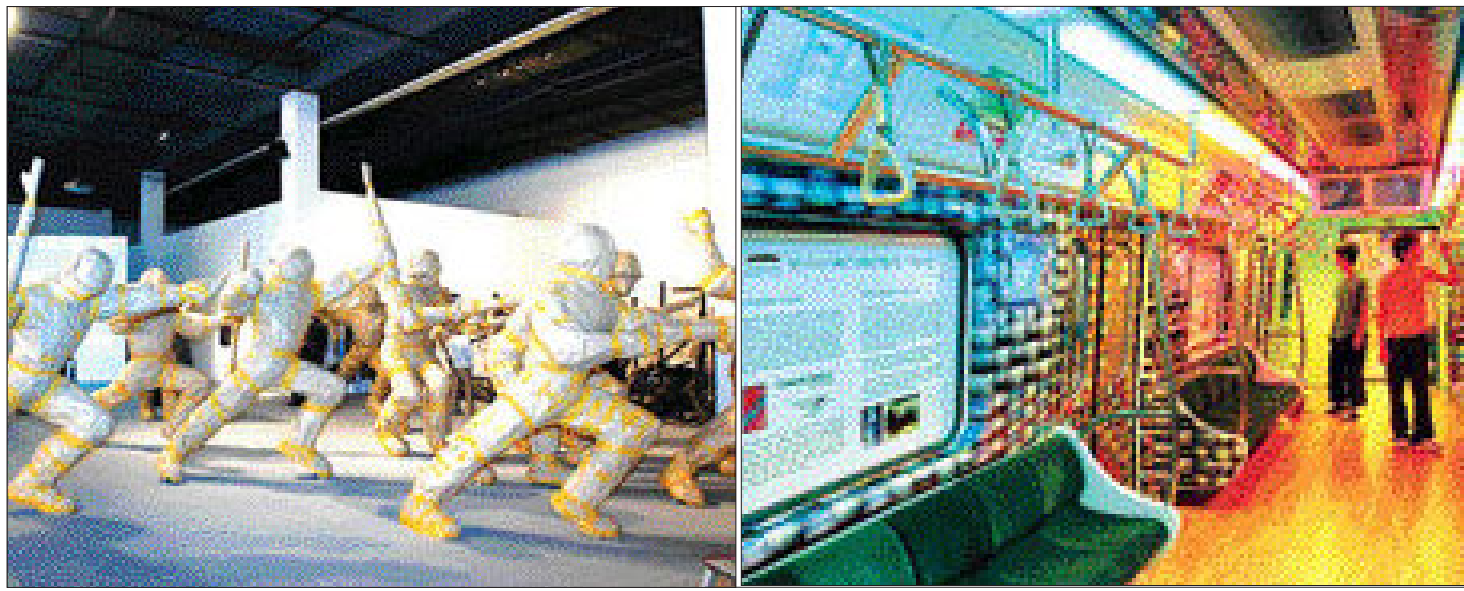
한국인으로 처음 참가한 작가는 1997년 비엔날레 영화 부문에 출품한 이아라였다.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1951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는 특히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 고흐를 비롯해 피카소, 샤갈, 마티스, 스타를, 무어, 키퍼 등 대가들의 수작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유명하다. 또 비디오 영상이나 설치 미술의 영역에서도 세계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지난 해 열린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전경.



올해 6회째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행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4년 열린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전준호 작 ‘또 다른 기념비를 위하여’(사진 왼쪽)와 광주 지하철을 전시장으로 꾸며 화제가 됐던 ‘메트로비엔날레’

하이 Teen 공부합시다
출품작을 통해 세계의 미술 흐름과 작가들의 존재를 한눈에 안 수 있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국제미술전’

1 비엔날레는?

비엔날레(Biennale)는 이탈리아어 ‘2년 마다’라는 뜻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처음 쓰이면서 ‘2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 미술전시회’로 그 뜻이 굳어졌습니다.

국제적인 미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국제 미술전시회가 기획되는데 1년에 한 번 열기엔 준비가 벅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3년 주기로 열리면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에 너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2년 주기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3년에 한 번 열리는 트리엔날레(Triennale), 4년 주기로 열리는 쿼드리엔날레(Quadriennale)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리엔날레는 밀라노 트리엔날레(1922년 발족한 뒤 1930년 이후 몇 차례 개최되지 않았으나 3년 마다 열리며, 공업미술이 중심), 카네기 국제현대미술전(1896년 창설) 등이 있습니다.

비엔날레에 참가하는 미술작가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하는 것이 큰 영광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태평양권 도시에서 가장 먼저 열린 최초의 비엔날레는 바로 지난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입니다.

세계 3대 비엔날레인 이탈리아의 베니스, 브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6회째로 주제는 ‘열풍변주곡’

라질의 상파울루,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의 명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미술계에 존재를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2 광주비엔날레의 위상?

세계적으로는 변방인 한국, 그 중에서도 조그만 도시 광주에서 열리는 ‘헨디캡’으로 인해 한때 존재론까지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제5회 광주비엔날레(9월 10~11월13일)가 관객이 직접 작가선정에 참여하는 ‘참여관객제’를 도입,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한톨 물 한방울’을 주제로 열렸던 지난 5회의 총 관람객수는 약 50만4천62명(비엔날레관 기준·유료 관객 41만7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회의 관객 41만8천명에 비해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일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부산비엔날레의 유료 관객 10만명의 4배가 넘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광주비엔날레가 5회를 계기로 다시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은 비엔날레 사상 최초로 도입된 ‘참여관객제’와 전시 해설요원을 배치한 ‘도슨트제도’의 성과로 분석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예술과 관객사이의 소통

을 컨셉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프로그램 등이 대거 마련돼 ‘열린 비엔날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3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열풍변주곡(熱風變奏曲·Fever Variations)’으로, 광주시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일원에서 9월8일~11월11일까지 65일 동안 열립니다. 참여 작가는 33개국에서 온 109명으로 현재 설치 작품의 전시에 필요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열풍변주곡’은 동서 현대미술에서 증폭되고 있는 아시아 미술문화에 대한 관심, 아시아 신흥도시들의 개발 및 일반 문화흐름에서 일고 있는 여러 ‘열풍’ 현상들에 대한 진단과 그 상징적 함축, 확장·확장하는 아시아의 내적 에너지와 비전을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어의 키워드는 크게 다섯가지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열(열기, 열정, 상승, 태양, 뜨거운 열-)+역동(스피드, 바람, 붓놀림-)+광창(에너지, 폭발, 파동, 열전도, 바이러스-)+융합(하나, 조화, 풍요-)+네트워크(교류, 전파, 확장, 파급, 공시적, 다발적-). 전시장 내의 작품 속에서 이같은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읽어낸다면 더 즐거운 감상이 될 것입니다.

4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크게 전시행사와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전시는 다시 ‘첫 장-뿌리를 찾아서 : 아시아 이야기를 펼치다’와 ‘마지막 장-길을 찾아서 : 세계도시 다시 그리다’로 나뉩니다.

첫 장은 현대 미술 문화 속에 나타나는 아시아 정신의 뿌리를 추적하는 전시회로, 아시아 미술의 현대화·세계화로의 과정과 그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동서양 미술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해체합니다.

마지막 장은 아시아·유럽·북남미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50여명의 작가들이 각 도시에서 현장 워크숍,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국적 작가들이 대상도시의 문화기관이나 대안공간을 활용해 협동 프로젝트를 사전에 진행시키고, 그 과정과 결과를 비엔날레 기간 중에 전시하는 본 전시회를 통해 창작 뿐 아니라 새로운 담론 창출을 시도합니다.

전시 외 행사로는 전야제와 개·폐막식, 야외 공연, 열린 아트마켓, 미술 놀이터, 광주별곡(시민 작가 참여 프로그램), 미술오케스트라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140만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아틀리 프로그램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트마켓. 아트마켓은 아트페어보다 규모가 작은 예술시장을 뜻하는 말로, 지역 작가들을 알리고 작은 그림을 판매하는 등 미술품 생산과 소비를 점목시키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김동원

